

전매광장



정준호 변호사

광주솔로몬파크, 옛 교도소 부지에 건립되는 의미

마나 잔혹한 인권유린의 도구로 전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유린' 역사적 의미

불행했던 과거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 진실을 기억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최근 법과 제도를 정권안보에 사용하려 했던 '불행한 역사의 되풀이' 시도가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죄는 그 피해의 규모와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1980년 5월과 세월호 참사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독일의 중세 범죄 박물관에는 중세 시대에 유럽 전역에서 자행되었던 고문과 체벌의 도구 3,0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법률과 형벌제도에 관한 내용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인권유린의 도구들과 함께 법과 형벌의 역사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리하게 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의 사례는 인혁당 사건과 민정학원 사건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른바 사법살인이다.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솔로몬파크에서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할 주체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힘이 법정의를 제대로 지킬 때 국민의 권리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법정의 바로세우는 계기되길

예컨대 1980년 8월의 어느 일간지에 실린 전두환 옹비어천가의 내용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두환 등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가 확정된 후 같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법이 법질서와 법정의의를 유린하고, 권력과 결합한 언론이 이를 뒷받침했던 과거의 불행을 확인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곳에서 다시 1987 영화를 확인하고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이 왜 희생되었는지, 우리는 왜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 법원, 재판 기피 전두환 꼼수 차단해야

온갖 이유를 들어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던 전두환의 꼼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법은 지난 2일 전씨 측이 낸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 측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행사소속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했다는 고조비오 신부를 겨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입 활어 국산 둔갑 강력한 처벌 필요

수입 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돔과 농어 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활어류의 수입 원산지 표시 위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따르면 올해 활어 수입은 홍민어가 278톤으로 가장 많았고, 참돔이 171톤, 참돔 128톤 등이었다.

수품원이 올 들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123건으로 지난해 108건을 훌쩍 넘어섰다.

특지광장 사소한 펫티켓 '목줄 착용'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목줄을 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있었다.

기고



김형묵 대한건설협 전라남도회

건설업계에서 바라본 남북 경제협력

쟁력을 산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이 수출로 연결되어 북한은 연 8~10% 고도성장, 남한은 5% 내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미래의 한반도의 통일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 경제가 현재의 낙후 수준을 벗어나 경제 재건을 위한 성장동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비용을 경감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시설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투자비용의 약 40%가 인프라 건설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북한의 인프라 사정은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남북경협 확대는 경제협력 강화나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과정에서 건설산업은 인프라의 직접 공급 이외에도 우리와 북한 주민의 고용증대 및 경기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중앙·지방 경제특구, 국제관광특구, 산업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과 도로, 철도, 항만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시기에 한국기업의 대북한 시장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은 입지적 접근성, 문화·역사적 동질성, 시공의 효율성, 국가적 지원등의 측면에서 여타 국가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호 이익(win-win)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고, 평화는 경제협력과 상호보완관계를 가지며, 평화가 굳어지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찾아 올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통일에 다다른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화해를 전제로 경제협력 개발 사업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 남북한 소통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북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경협과 통일은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이고 기다림이 될 수 있다. 낙후한 북한에 대해 경협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남쪽에서 과거 진행된 개발시대를 다시 한 번 맞이하는 것과 비슷하며, 남북의 경험확대와 통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통일은 언제 올지 모른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이 경험한 천문학적인 예산낭비와 시행착오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고



김채선 강진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예방이 최선

다면 큰 오산이다. 최근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창한 한국어말은 물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허접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경찰, 검찰을 사칭한 개인정보보호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예금보호,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통적인 수법부터, 아파트 분양권, 선거 여론조사 등 국내 이슈와 현안을 이용한 기발한 수법까지 갈수록 그 방법이 정밀해지고 있다.

다양한 수법 중에서도 최근 들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사기형 수법이다.

몇 년전 TV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어눌한 조선희 말투의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하여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킨다.

2006년 최초 발생 후 경찰의 단속과 꾸준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내용을 접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범죄수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당하는 피해자가 문제라고 간과하거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얻어내거나, 돈을 송금 받는 것이다.

전화로 자금의 이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다. 그 무엇보다 속지 않는 예방이 최선이다.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다. 그 무엇보다 속지 않는 예방이 최선이다.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협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善男 편집국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